

# AI Frameworks / AutoGen

2025.12.23  
peny.official

kakao

# Compound AI Systems 구축을 위한 차세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

---

- 배경: 단일 모델 중심에서 여러 에이전트와 도구가 결합된 협업 시스템으로의 진화.
- 요약: 에이전틱 프로그래밍의 정의, 프레임워크 필요조건, 그리고 AutoGen의 핵심 기능 및 사례

# Future of AI Application

---

- 생성형(Generative)에서 에이전(Agentic)으로 진화:  
미래의 AI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히 콘텐츠를 생성하는 단계를 넘어,  
인간을 대신해 복잡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실행
- 예시
  - 과학 에이전트: 자동 과학 발견 수행.
  - 웹 에이전트: 웹 탐색 및 업무 자동화.
  - 소프트웨어 에이전트: 스스로 소프트웨어 구축 및 오류 수정

# Agentic Programming

---

AI 에이전트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독립적으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도록 설계하는 방식

1. 작업 효율성 및 결과물 품질 극대화: 반복과 협업을 통한 품질 향상,  
**Divide & Conquer**, 검증
2. 시스템 설계의 유연성 및 개발 편의성: 모듈화된 구조,  
**Human-in-the-loop**, 신속한 실험과 최적화

#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필요조건(Desiderata)

---

효과적인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프레임워크는 다음을 지원해야 함

1. 통합된 추상화: 모델, 도구, 인간을 하나의 AI 시스템 내에서 유기적으로 통합.
2. 유연한 오케스트레이션: 정적/동적 워크플로우, 중앙화/탈중앙화 등 다양한 상호작용 패턴 지원.
3. 설계 패턴 지원: 대화(Conversation), 계획 수립(Planning), 도구 사용, 멀티모달리티 등의 패턴 구현.
4. 확장성: 산업별 상이한 요구사항에 맞춰 커스텀 워크플로우 구성 가능

# 주요 에이전틱 AI 프레임워크 비교

---

1. AutoGen: 멀티 에이전트 '대화(Conversation)' 기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며 가장 포괄적이고 유연함.
2. LangGraph: 그래프 기반의 제어 흐름(Control Flow) 제공에 특화.
3. CrewAI: 고수준의 정적인 에이전트-태스크 워크플로우 중

# AutoGen

# AutoGen의 핵심: 대화형 프로그래밍

---

AutoGen은 에이전트형 AI를 위한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로, "대화 (Conversation)" 를 중심요소로 사용하여 AI 에이전트의 설계를 단순화

- Define Agents(에이전트 정의): AutoGen의 에이전트는 대화가 가능 (Conversable)하며, LLM, 도구, 인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자유롭게 맞춤 설정(Customizable)할 수 있음.
- 대화형 프로그래밍 (Conversation Programming): 에이전트 간의 대화 패턴(순차, 중첩, 그룹)을 정의하여 복잡한 로직 처리함.

# AutoGen의 대화 패턴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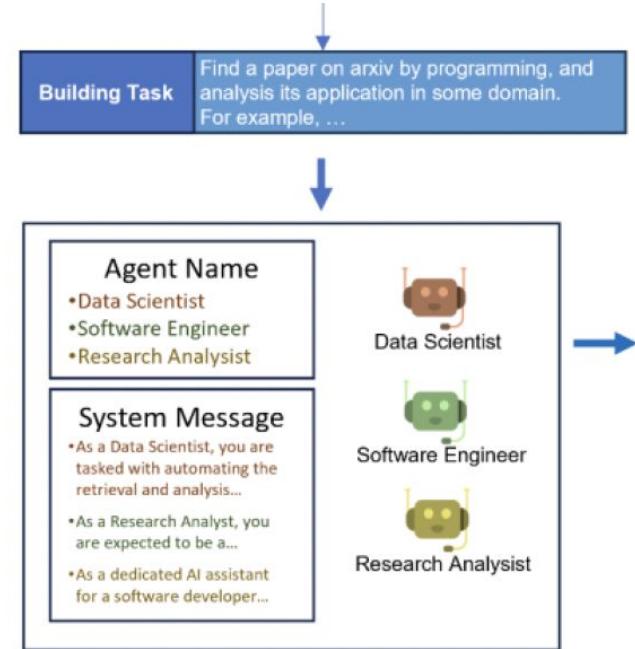
- 순차적 대화(**Sequential Chat**): 에이전트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업무를 전달.
- 중첩 대화(**Nested Chat**): 한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다른 에이전트 팀과 대화하여 결과를 도출(외부에는 단일 에이전트처럼 보임).
- 그룹 대화(**Group Chat**): 관리자 에이전트가 상황에 맞춰 다음 발언자를 동적으로 선택.
- 상태 기반(**StateFlow**): 상태 머신(**State Machine**) 로직을 적용해 엄격한 전이 규칙 제어

# AutoGen: AutoBuild

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한지 일일이 설계하고 코딩할 필요 없이, 자동으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(Build) 해주는 프레임워크

**Adaptive Build:** 작업을 여러 단계의 하위 작업(Subtask)으로 쪼개고,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이전트 팀을 동적으로 구성하거나 기존 에이전트 라이브러리에서 최적의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투입

**빌드 매니저(LLM):** 사용자가 입력한 작업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지 결정. 이때 각 에이전트에게 이름과 함께 매우 상세한 "시스템 메시지 (System Message)"를 생성해 주는데, 이 메시지가 바로 에이전트의 룰(페르소나)가 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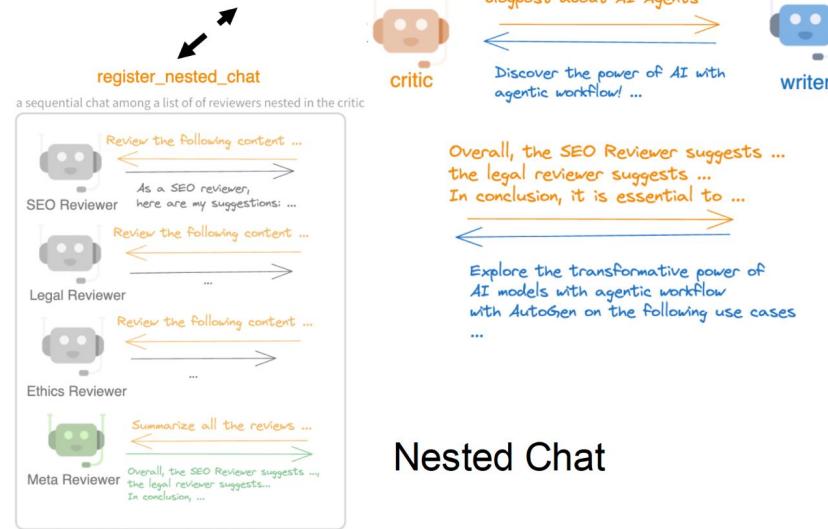
AgentBuilder

# AutoGen 적용 사례

- 블로그 글쓰기: Writer(초안)와 Critic(비평) 간의 반복적인 리플렉션을 통해 품질 향상.

## Blogpost Writing with Advanced Reflec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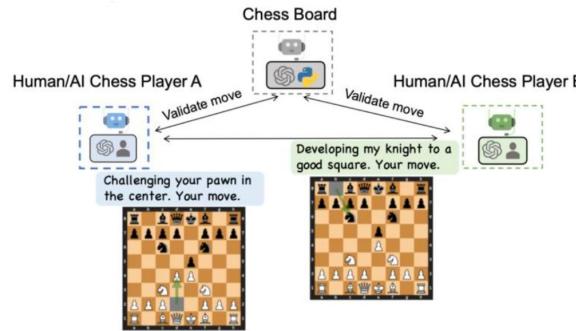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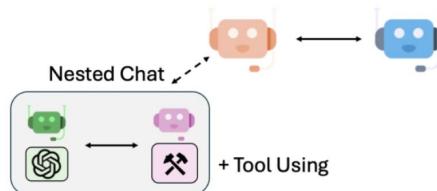
```
critic.register_nested_chats(  
    ...review_chats,  
    ...trigger=writer,  
)  
  
critic.initiate_chat(  
    recipient=writer,  
    message=task,  
    max_turns=2,  
    summary_method="last_msg"  
)
```



# AutoGen 적용 사례

- 대화형 체스: 체스판 도구(Tool)를 활용해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게임 진행.

## Conversational Chess



```
from autogen import register_function

for caller in [player_white, player_black]:
    register_function(
        get_legal_moves,
        caller=caller,
        executor=board_proxy,
        name="get_legal_moves",
        description="Get legal moves.",
    )

    register_function(
        make_move,
        caller=caller,
        executor=board_proxy,
        name="make_move",
        description="Call this tool to make a move.",
    )
```

## AutoGen 적용 사례

```
def state_transition(last_speaker, groupchat):
    messages = groupchat.messages

    if last_speaker is initializer:
        # init -> retrieve
        return coder
    elif last_speaker is coder:
        # retrieve: action 1 -> action 2
        return executor
    elif last_speaker is executor:
        if messages[-1]["content"] == "exitcode: 1":
            # retrieve --(execution failed)--> retrieve
            return coder
        else:
            # retrieve --(execution success)--> research
            return scientist
    elif last_speaker == "Scientist":
        # research -> end
        return None

groupchat = autogen.GroupChat(
    agents=[initializer, coder, executor, scientist],
    messages=[],
    max_round=20,
    speaker_selection_method=state_transition,
```

- 그룹 대화를 통한 복잡한 작업 기획:  
관리자(Manager) 에이전트는 전체 대화 흐름을 모니터링하며, 현재 상황에서 다음에 발언할 가장 적절한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결정
  - 상태 기반 워크플로우: 작업 수행 과정을 "상태 머신(State Machine)"으로 개념화하여, LLM이 미리 정의된 상태 전이(state transfer)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함.

# AutoGen 적용 사례2

---

- **SCI-Agent:** AutoGen 프레임워크를 기반 과학 연구용 멀티 에이전트 리즈닝 에이전트로, 과학적 발견을 자동화하기 위해 지식 그래프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결합하여 가설 수립 및 검증을 수행
- **Agent-E:** AutoGen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혁신적인 자율형 웹 에이전트, 계층적 에이전트 팀을 구성하여 복잡한 웹 환경에서 항공권 예약이나 클리닉 양식 작성 등의 작업을 자동화

# Multimodal Assistant: LlamalIndex

2025.12.23  
peny.official

kakao

# (기업) 데이터 기반의 컨텍스트 증강 LLM 애플리케이션

---

- 목표: 어떤 작업(입력)이든 수행하여 최적의 결과(출력)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구축.
- 지원 범위: 프로토타입에서 운영(**Production**) 단계까지의 전 과정 지원.
- 핵심 요소: 고품질 데이터 처리, 멀티모달 **RAG**, 에이전트적 추론, 확장 가능한 배포

# Retrieve (검색)

# 기본 RAG(Naive RAG)의 한계와 도전

---

"Garbage In = Garbage Out" 원칙

- 단순 텍스트 분할 및 고정된 검색 방식은 복잡한 문서 구조를 무시함.
- 낮은 쿼리 이해도 및 계획 능력 부재로 인해 할루시네이션(환각) 유발.
- 단순 검색만으로는 복잡한 태스크 활용에 한계가 있음

# High-Quality Multi-Modal RAG: LlamaParse

---

표, 차트, 이미지, 불규칙한 레이아웃이 포함된 복잡한 PDF를  
AI 기반으로 파싱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.

# High-Quality Multi-Modal RAG: Advanced Indexing

---

텍스트, 표, 이미지 등 이질적인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인덱싱하고,  
각 요소의 요약본을 만들어 참조

- 요약본 기반 참조(**Summary-based References**): 표/이미지에서  
텍스트 요약본을 추출하여 벡터 DB에 인덱싱.
- 노드(**Node**) 구조: 요약본 노드가 실제 원본 데이터(**Source Chunk**)  
를 가리키는 포인터 역할 수행.
- 재귀적 검색(**Recursive Retrieval**): 요약 노드 검색 후 관련 원본  
데이터를 추적하여 정밀하게 추출

# Multi-Modal RAG Pipeline

---

문서를 텍스트와 이미지 청크로 파싱한 뒤 메타데이터로 연결.  
생성 시 멀티모달 LLM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입력하여 확장된  
쿼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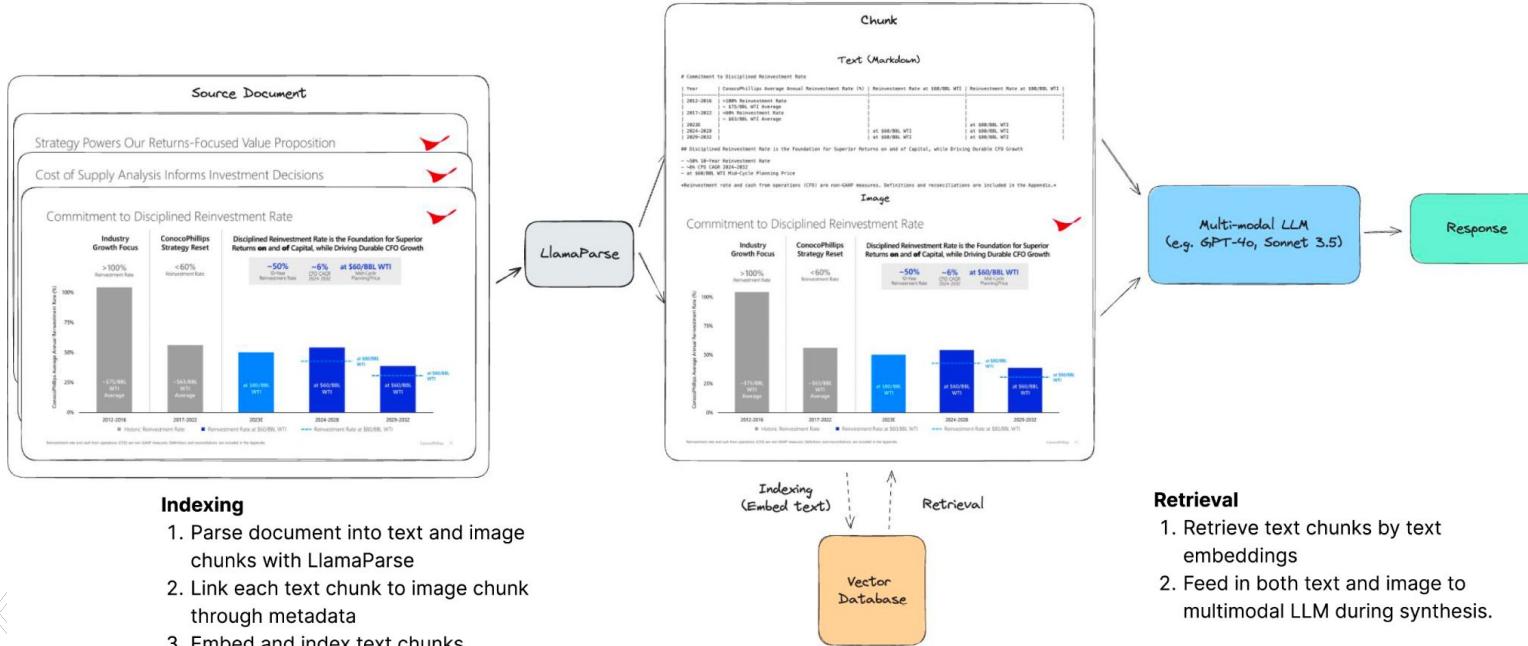
- **메타데이터 연결(Metadata Linking)**: 파싱 시 텍스트 청크와 이미지 청크를 메타데이터로 상호 연결.
- **검색 및 합성(Retrieval & Synthesis)**: 텍스트 임베딩으로 검색 후, 텍스트와 이미지를 멀티모달 LLM에 동시에 입력

# Multi-Modal RAG Pipeline

## Multimodal RAG Pipeline

A true multimodal RAG pipeline stores both text and image chunks for use within a multi-modal LLM

### Multi-modal RAG over a Slide Deck



# Report Generation

---

단순한 챗봇 응답형태를 넘어 텍스트와 이미지가 섞인 형태의 종합 보고서를 자동 생성합니다. 이는 단순 답변보다 시간 절약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훨씬 높은 투자 대비 효과(**ROI**)를 제공

# Agentic Reasoning over Complex Input

(복잡한 입력에 대한 에이전트적 추론)

단순한 검색을 넘어 LLM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여  
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능력

# Agentic Reasoning over Complex Input: Agentic RAG

---

## 복잡한 작업 해결을 위한 에이전트적 추론

- 핵심: 모든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'도구(Tool)'로 간주하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선택
  - 기본적인 RAG: 질문 → 검색 → 답변
  - 에이전트 RAG: 검색뿐만 아니라 SQL 쿼리 실행, 웹 검색, API 호출 등 다양한 도구 중 현재 질문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을 스스로 선택
- 추론 루프: 순차적(Sequential), DAG, 트리 구조 등을 활용해 고난도 과제 수행

# Agentic Reasoning over Complex Input: Flows

---

## 추론의 방식과 자율성

- **Constrained** (제약된 흐름): 라우터 기반으로 인간이 흐름을 정의하여 신뢰성이 높지만 표현력은 제한적.
- **Unconstrained** (제약 없는 흐름): React, LLM Compiler 등을 사용하여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표현력이 높지만, 무한 루프 위험과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.

# Agentic Reasoning over Complex Input: Orchestration

---

Llamaindex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가 갖춰야 할 필수 속성으로 다음 6가지를 정의합니다.

- 이벤트 기반 (**Event-Driven**): 이벤트 입출력을 통해 복잡한 비동기 로직을 효과적으로 관리.
- 코드 우선 (**Code-first**): 오케스트레이션 로직을 파이썬 코드로 직접 작성합니다. 이는 읽기 쉽고 확장성이 뛰어나며, 개발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
- 구성 가능성 (**Composable**): 세분화된 작은 워크플로우들을 결합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
- 유연성 (**Flexible**): LLM 호출뿐만 아니라 일반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여 로직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,
- 디버깅 및 관찰 가능성 (**Debuggable & Observable**): 시스템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 단계를 추적할 수 있어,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.
- 프로덕션 배포 용이성: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성한 코드를 실제 운영 환경의

# 운영 환경에서의 에이전트 배포

---

## Production 앱을 위한 5대 필수 요구사항

1. 캡슐화: 각 에이전트 기능을 독립 서비스로 관리.
2. 표준화 통신: 에이전트 간 및 클라이언트와의 표준 인터페이스 확보.
3. 확장성: 사용자 수 및 에이전트 수 증가에 대한 대응 능력.
4. Human-in-the-loop: 에이전트의 판단 지원 및 승인을 위한 인간 개입 서비스.
5. 관찰 가능성: 개발자를 위한 디버깅 및 모니터링 도구

**END**